

NOROO

NOROO

SPRING · 2024

VOL.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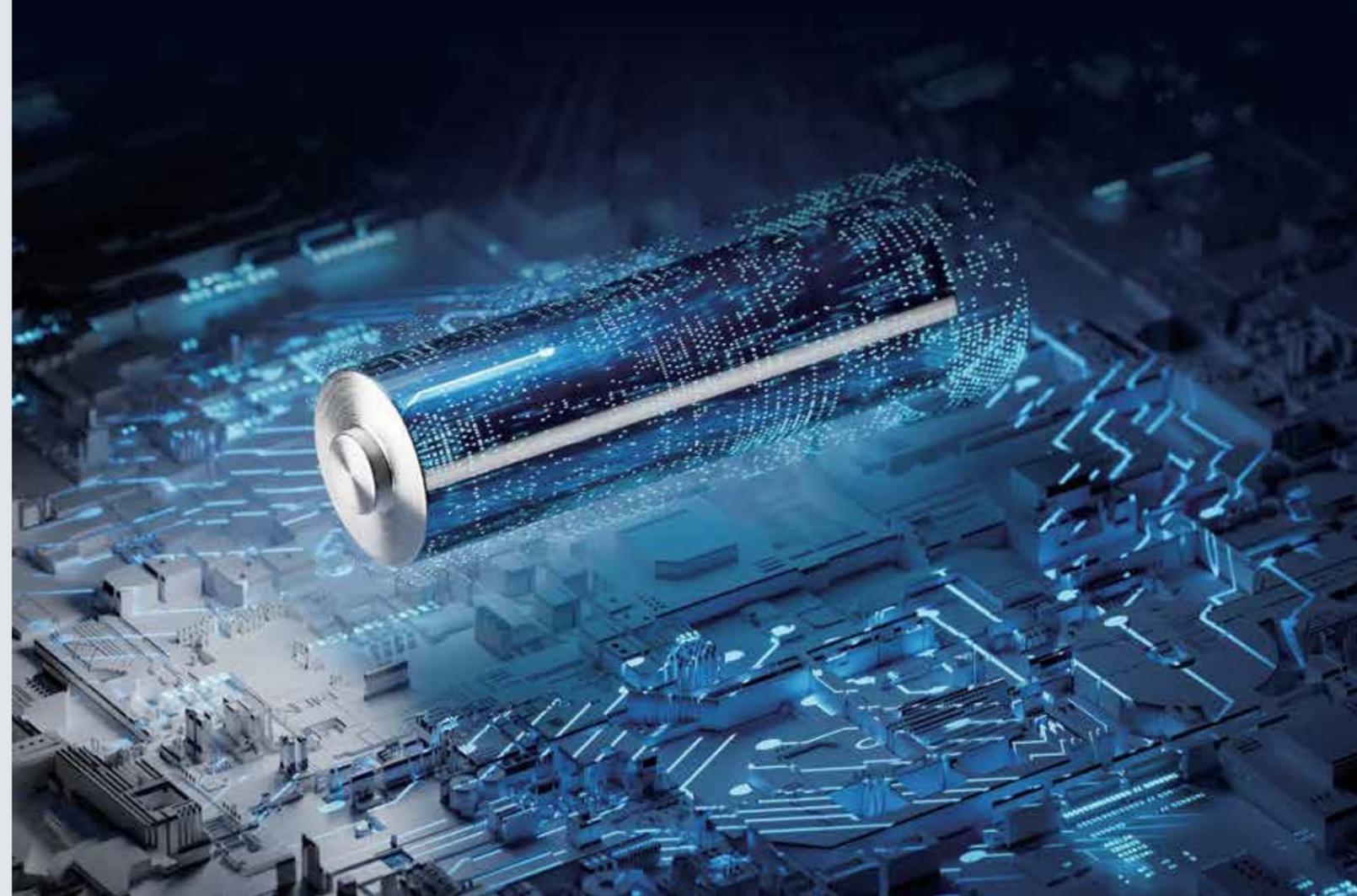
# NOROO

NOROO Quarterly Magazine

SPRING · 2024

VOL. 70

SPECIAL THEME  
[에너지], 가치를 올리다





## SPECIAL THEME



[에너지], 가치를 올리다

- 06 INTERVIEW 노루페인트의 에너지 기술력, 미래를 밝히다
- 10 VIEWFINDER 1 노루페인트와 <인터배터리 2024>
- 12 VIEWFINDER 2 에너지의 가치를 올리는 또 다른 방법, 에너지 세이버

## CULTURE GALLERY

- 16 COLOR SOUND 한강의 스카이크랄, 봄을 채우다
- 18 HEALTH 가속되는 일상 속, 감속해야 할 노화
- 20 TRIP 살아보듯 여행하는 우리나라 로컬여행

24 . PAINT FOR ART 1



36 . PAINT FOR ART 4



40 . FOCUS ON NOROO



## NOROO PEOPLE



- 24 PAINT FOR ART 1 구본창의 향해, 컬러 속에 닳을 내리다  
구본창의 향해 WITH NOROO PAINT
- 28 PAINT FOR ART 2 붓과 목이 창조하는 세계  
필묵변혁 WITH NOROO PAINT
- 32 PAINT FOR ART 3 그림을 깨우다, 생각이 춤춘다  
그림 깨우기 :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전 WITH NOROO PAINT
- 36 PAINT FOR ART 4 당신의 사랑은 무슨 색인가요  
브라이언 레 《LOVE STORIES》 WITH NOROO PAINT
- 40 FOCUS ON NOROO 첨단도료와 스텔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WITH NOROO PAINT
- 44 HIGH FIVE [특약점], 가치를 올리다  
2024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
- 48 NEWS BRIEFING
- 50 ECO GUIDE 공정무역으로 돕는 지구 위 균형
- 51 QUIZ

###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정석찬 차장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차장

(주)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박지현 대리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노루오토코딩 경영기획팀 안세현 과장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김지안 주임

(주)노루코일코딩 인사총무팀 추정민 주임  
(주)기반테크 경영지원팀 김효원 대리

SPECIAL THEME

# [에너지], 가치를 올리다

에너지는 문명의 발달을 만드는 그야말로 '원동력'인 데다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레방아, 풍차 등에 의존해 생산했던 수력, 풍력의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석 에너지로 바뀌면서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연소가 필수인 화석 에너지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저탄소 자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를 넘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인류의 발전을 끌어온 에너지는 그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으로 다시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영속케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다.

# 노루페인트의 에너지 기술력, 미래를 밝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노루페인트는 그동안 개발해 온 2차전지와 수소에너지 소재를 공개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차전지는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보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이용하여 다시 전기를 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근본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그린에너지로 꼽히고 있다. 노루페인트가 종합정밀화학 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공표한 신에너지 소재 기술력은 노루페인트의 가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미래 지구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 에너지 순환을 향하다

“에너지는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죠.” 노루페인트가 참여한 <인터배터리 2024> 코엑스 현장에서 만난 노루페인트 연구소의 노정석 부장은 차분하고도 올림이 깊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행사 첫날에만 3만 5천 명이 찾았다는 이 박람회장에서 관람객 응대와 관계자 설명, 인터뷰를 이어가느라 지쳤을 법한데도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어조였다.

“현재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화력과 원자력을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와 규제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 많은 기업이 대비를 하고 있지요. 그 변화의 과정에서 2차전지 배터리의 사용처가 더 확대되고, 나아가 수소에너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는 2차전지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첨단 소재들을 개발했으며 지금도 개발 및 양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연구소 노정석 부장



2차전지 배터리의 경우, 사용 시엔 내연기관이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발전 과정에는 아직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에 탄소 발생과 환경오염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배터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확대는 그린 수소로 대표되는 차세대 에너지의 이용을 앞당길 수 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 등의 자연 유래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 내고 그 수소를 전기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죠. 저희 연구소는 이를 위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발굴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노루페인트 연구소의 미션을 힘주어 말하는 노정석 부장이다.

## 안전성을 높이고 상용화를 앞당기다

노루페인트는 사실, 신에너지 소재는 물론이고 모바일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등 오래전부터 종합정밀화학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흔히 ‘페인트’ 하면 간단히 ‘도색’으로만 여겨지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밀화학의 토털 솔루션 기술이 필요한 게 페인트입니다. 어떤 소재에도 잘 부착되어야 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내구성도 좋아야 하고, 안전하기도 해야 하죠. 하나하나 뛰어난 성능을 갖춘 재료가 모여 페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노루페인트는 8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축적해 온 노하우와 기술, 성능을 2011년부터 모바일과 전자 소재에 적용해 왔고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 대한 소재 개발 또한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루페인트는 <인터배터리 2024> 전시 부스에 홍보용 디지털 패널과 패드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관람객과 상담하며 첨단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개발에도 일찍이 앞장선 노루페인트는 이번 박람회에 셀, 모듈, 팩 관련의 음극용 바인더, 분리막 코팅 바인더, 방열 관련 접착 및 몰딩, 난연성 코팅제 등 13종의 제품을 소개했다. 이들은 배터리의 수명 감소를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화재 전파를 방지하는 등 배터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소재이다. “에너지 관련 시장의 경우 소재 하나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과 평가를 새로이 정립하고 폭발 테스트 등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쟁사보다 앞서가다 보니 보안에도 민감하죠. 그간 고객사들과 협업하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도 했죠.”

그 많은 기술 중 이번에 소개된 수소에너지 소재 3종은 세계 최초 양산형 자동차에 적용된 필름형 핫멜트 접착제인 연료전지용 서브가스켓 접착제와 국내 최초로 양산에 적용된 연료전지 제조 공정용 GDL 접착제, 그리고 수전해용 서브가스켓 접착제이다. 수전해용 서브가스켓 접착제는 수소 연료전지용 접착제 양산화 기술을 접목해 개발 중이다.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을 분해해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근본적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수소도 물 분해 시 원자력이나 화력 전기를 이용하는 그레이 수소와 태양 에너지나 풍력의 전기를 사용하는 그린 수소가 나뉩니다. 저희 노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진정한 미래 그린 에너지라고 보이는 그린 수소를 만드는 쪽에서도 개발을 진행하며 고객사들과 협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수소는 선박과 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에 사용되며 차츰 사용처를 늘려가고 있다. 전국 곳곳에 수소 버스 보급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그린에너지 수소가 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속에는 노루페인트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이제 아파트를 만들 때 수소 발전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까지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건물까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발전 시스템이 확장 적용될 때 저희가 기술자로서 결실을 맺는 보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노정석 부장은 작은 소망이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지만 이는 인류와 지구에게 큰 희망이 될 미래상이지 않을까. 안전한 그린에너지가 보편화될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그려보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밝히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는 노루페인트이다.



# 노루페인트와 <인터배터리 2024>

노루페인트가 참가한 <인터배터리 2024>는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로 최신 제품 및 기술과 배터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이곳에서 셀 소재, 모듈 소재, 팩 소재, 수소에너지 부문의 총 16개 제품을 공개, 홍보하며 신사업 성장의 모멘텀에 힘을 더했다.

## <인터배터리 2024>

2013년부터 매해 열고 있는 <인터배터리>가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해마다 참가 업체와 관람객의 수가 증가해 온 <인터배터리>의 올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KOTRA가 주최 및 주관하였으며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약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참가 규모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국가 18개국에서 579개 업체가 참가, 충전용 배터리,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검사 및 측정 장비 소개를 위해 약 2천 개에 달하는 부스를 열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주요 대형 배터리셀 기업과 배터리 소재 사업에 뛰어들 기업들까지 2차전지와 에너지 관련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홍보했다. 또한 올해 행사에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국제 배터리 포럼,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술 세미나, 배터리 뉴비즈 포럼 등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및 잡페어까지 열려 바이어뿐 아니라 많은 일반 관람객까지 아우르는 자리로 되었다.



## 신에너지 첨단 소재 정밀화학기업,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는 <인터배터리 2024>의 배터리 밸류 체인 전시 구역에서 '에너지 테크 솔루션(Energy Tech Solution)'을 주제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13종과 수소에너지 소재 3종을 공개했다. 최근 전기 자동차에서의 화재 안전성 및 효율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는 만큼, 노루페인트는 난연성과 방열성, 절연성을 높이면서 경량화도 이루어 낸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을 소개한 것. 접착제(바인더), 몰딩제(마감제), 난연 우레탄 폼을 모두 갖춘 데다 안전성과 성능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루페인트의 2차전지 소재 풀 라인업은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며 경쟁력을 높여 주고 있다.

또한 함께 선보인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는 수소 연료 전지 핵심 구성품인 수전해 제조에 사용되는 필름접착제로, 구동의 안정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연구 단계 때부터 2차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제조용으로만 쓰이도록 개발된 것으로, 각 용도에 맞게 최적의 비율로 원료를 배합해 첨단 기능성을 갖췄다.



노루페인트는 전시 부스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지털 쇼룸의 형태로 부스 디자인을 하였으며, 효과적인 제품 소개를 위해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부스를 꾸미고 홍보 영상을 제작, 대형 메인 디스플레이에 띄웠다. 또한 상세 설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패널을 벽면에 설치하고 따로 큐알코드를 마련해 상세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부스 내에는 테이블을 비치, 제품 소개가 있는 디지털 패드를 보여 자연스럽게 상담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관람객 및 업계 방문객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계속 오고 가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담 이후의 관심과 정보 확인을 위해 전자 카탈로그와 책자도 제작하는 등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노루페인트는 연구소는 물론, 해외팀과 디지털마케팅팀, 영업팀에서도 현장에 함께하며 사흘간 수많은 관람객에게 노루페인트의 새로운 역량을 펼쳐 보였다.

행사를 진행한 직원은 "많은 관람객을 응대하느라 바빴지만, 노루페인트의 첨단 기술을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보람 있었습니다. 페인트만 생산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의 신에너지 소재 기술을 확인하시고 놀라는 얼굴을 볼 때 특히 자랑스러웠습니다."라며 뿌듯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인터배터리 2024>는 노루페인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 갈고 닦아온 선도적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선보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종합정밀화학기업 노루페인트의 신에너지 소재가 함께할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 에너지의 가치를 올리는 또 다른 방법, 에너지 세이버

탄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저장하며, 친환경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 외에 에너지의 가치를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만들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손실을 막고 오래도록 보존하며 추가적 에너지의 필요를 가급적 낮추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환경을 돕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이롭다. 노루페인트는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기능성 '에너지 세이버' 제품 라인을 제공 중이다. 그중 몇 가지를 꼽아 소개해 본다.



## 에너지 세이버 콜로드

ENERGY SAVER COOL-ROAD

이제 곧 더워지는 여름이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날 가장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뽐는 곳은 아스팔트가 아닐까.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다 보면 자동차들이 반사하는 태양열과 아스팔트에서 훅훅 올라오는 열기로 숨쉬기도 힘들다. 이를 위해 노루페인트가 준비했다. 건축용 특수기능도료인 에너지 세이버 콜로드는 ACRYLIC계 울리고머와 MMA 모노머 주체로 구성된 차열성 도료로, 적외선 반사 특수안료를 적용하여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지표열을 방출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해 준다. 게다가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건조 시간이 1시간 이내라 차량 통제를 최소화해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췄다. 우수한 도막 물성과 미끄럼 저항성까지 있어 교차로, 급커브 도로, 버스 정류장, 산책로에 안성맞춤이다. 에너지 세이버 콜로드는 부산시 수변공원 콘크리트 보행로에 시공되어 시민들의 시원한 휴식을 돕기도 했다.

##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

ENERGY SAVER COOL-ROOF

노루페인트의 옥상 방수도료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는 에너지 절감형 제품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제품이다. 옥상에 흰색을 칠하면 녹색일 때와 비교했을 때 약 20도 이상이나 표면 온도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노루페인트는 더위를 식히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적외선 특수 반사 원료로 복사열을 차단하는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 제품을 만들고 서울시와 옥탑방 쿨루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제품은 태양열을 반사시켜 열의 침투를 막고 도막 내에 흡수된 열은 세라믹 입자에 의해 소멸되거나 외측에 낮게 방사되어 차열 효과를 발휘한다. 국내 특허와 KS 인증, 미국의 에너지 절감형 도료 인증기관인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및 에너지스타 인증까지 획득한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는 여름에는 냉방 에너지를,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를 절감해 주는 기특한 제품이다.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는 수성, 우레탄(R), 에코 쿨루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중 에코 쿨루프는 수성 타입이면서도 옥상 방수 KS규격(KS F 3211)까지 만족하는 친환경 우레탄 방수도료이다.



## 에너지 세이버 쿨월

ENERGY SAVER COOL WALL

에너지 세이버 쿨월은 적외선 반사와 열 차단 기술을 복합 적용해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 모두 쿨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 외벽용 차열페인트이다. CRRC는 2022년에 기존의 옥상용 차열 페인트인 쿨루프 인증과 별개로 건물 외벽에 적합한 스펙과 기능을 요하는 외벽 등급 프로그램(Wall Rating Program)을 도입했다. 이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건물 외벽용 제품을 평가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쿨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에 적합한 태양광 스펙트럼 반사계(Solar Spectrum Reflectometer) 설정이 필요하며, 초기 평가 이후 3년간 진행되는 노화시험에서는 건물 외벽 시공에 적합한 각도(90°)로 시험하는 등 외벽 시공 중심의 시험 성적이 요구된다. 노루페인트의 에너지 세이버 쿨월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국내 최초로 'CRRC Cool Wall(쿨월)' 인증을 획득했으며 품질 면에서도 KS M 6010 외부 1급 규격의 물성, 우수한 내알칼리성, 내수성, 내세척성, 내후성 등을 갖춰 에너지 절감에 점점 민감해지는 건축 시장의 수요에 대비하였다.



## 에너지 세이버 윈도우 유리용

ENERGY SAVER WINDOW

'유리에 바르는 선크림, UV 선블록 페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세이버 윈도우는 유리창에 바르는 반투명 코팅 페인트로, UV를 90% 이상 차단하는 특수 나노 무기안료가 들어 있어서 태양열과 자외선을 차단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주거 환경을 보호해 주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에너지 세이버 윈도우는 유리를 반투명으로 코팅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저층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자연 채광은 투과해 내부를 어둡지 않게 한다. 사이즈를 재고 잘라 붙여야 하는 시트지와 달리 롤러로 쓱쓱 바르면 되는 데다가 제거하고 싶을 땐 스프레이로 물만 뿌리면 손쉽게 떼어낼 수 있어 편리하다.

##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

ENERGY SAVER SHADER

기후 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노루페인트가 개발하고 기반테크가 유통하는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등 외부에 도포하여 열을 차단하는 광조절코팅제로, 4~5°C의 온도 하강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취득하고 2014년에 개발, 출시한 이 제품은 가축과 농작물, 사람에게 전해 유해하지 않은 전분 등이 주성분이라 안심하고 도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광제가 빗물, 바람 등의 자연 환경에 스스로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에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에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온실용과 폭염으로부터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축사용이 있으며 인력으로 도포하거나 드론으로 도포할 수 있다.



# CULTURE GALLERY

새 계절에 하려 했던 계획들, 모두 실천하고 있나요?

짧은 봄이 가기 전에,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핑크빛 노을 지는 한강변에서 음악 듣기, 여름철 휴가지 미리 예약하기, 건강한 식단 꾸리기 등  
조금씩 이뤄가면 작은 꽃 피듯 봄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 한강의 스카이크랄, 봄을 채우다

노루페인트의 컬러 전문 연구소 NSDS가 서울시와 공동 개발한 '2024 서울색', '스카이크랄(Skycoral)'을 컬러 사운드와 NOROO Playlist로 만나보자. 한강의 핑크빛 노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색은, 지난 한 해 서울 시민이 가장 사랑한 서울의 색으로 2024년 서울 도심 곳곳을 다양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그보다 먼저 <컬러 사운드> 영상을 플레이해서 화면을 스카이크랄로 채워 보는 게 어떨까.



SCAN ME

COLOR SOUND Skycoral

## 노을빛 스카이 코랄

핑크는 힘이 센 색상이다. 핑크란 단어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니 말이다. 설렘, 기대, 사랑스러움 등이 전해져 오는 핑크 중에서도 '2024 서울색'으로 선정된 스카이크랄은 하루의 막을 내리는 노을에서 비롯된 컬러이니만큼 그리움과 애뜻함, 포근함과 따뜻함 등 더 진한 감정의 농도를 전한다. 노루페인트 유튜브 채널 <페인트 잇수다>는 Satisfying ASMR인 <컬러 사운드>로 스카이크랄 영상을 준비해 그 감정에 여운을 더했다.

부드러운 네온의 빛과 함께 시작된 화면은 밝은 햇살이 비추는 벽으로, 세상을 온통 핑크빛으로 바꿔 놓을 하트 선글라스로, 계절의 시작과 끝을 알릴 꽃잎으로, 봄을 가져다주는 바람결을 시각화하는 스텔로 바뀌며 새소리와 바람 소리, 툭툭 떨어지는 낙화의 소리로 귀까지 스카이크랄로 물들인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보석, 노을이 번지는 강물 위 요트, 스카이크랄 컬러의 눈이 사뿐사뿐 내리는 숲으로 향하는 영상과 음악에 눈과 귀를 맡기면 이 세상에는 없는 판타지 속에서 몸도 마음도 달콤하게 녹는 기분이 되어버리고 만다.



## 휴식이 주는 에너지

무장 해제된 마음을 차분하게 정렬시켜 주는 것은 스카이크랄 모래를 정갈하게 쓸어 가지런한 무늬를 내주는 다음 장면이다. 삭삭 비질하는 소리로 머릿속 잡념을 쓸어내고 나면 나타나는 것은 SEOUL이란 글자. 스카이크랄 페인트 위로 천천히 떠오른 SEOUL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색다르게 생각해 한다. 정신없이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들어 바라보면 마주할 수 있는 노을처럼, 그 노을이 주는 찰나의 휴식처럼, 스카이크랄은 쉼과 다시 시작할 활기를 던지시 건네주는 색상이다. <페인트 잇수다>는 <컬러 사운드> 스카이크랄을 소개하며 "2024 서울색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이란 질문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봄의 왈츠, 깨어남, 봄바람, 몽글몽글, 새로운 시작, 용기" 등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들에서 느껴지듯 스카이크랄 영상에 푹 빠졌다가 나오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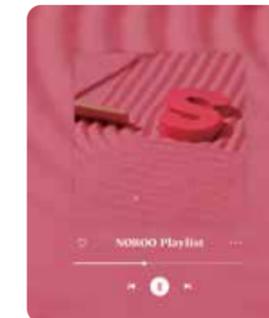


SCAN ME

NOROO Playlist Skycoral

## 스카이크랄이 스며든 NOROO Playlist

<페인트 잇수다>는 봄을 맞아 스카이크랄에 어울리는 선곡으로 NOROO Playlist도 준비했다. 꽃가루가 날리는 것 같은 Kalbells의 몽환적인 <Poppy Tree>에 이어 Peggy Gou의 <Nabi>(feat. OHHYUK), Marcin Grochowina의 <Morning Smile>, 보배, 조지, 카데호의 곡 등 숨겨진 보물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한국의 클래식인 김현철의 노래까지 시대와 세대, 유명세를 넘나드는 명곡들이 모여 봄날의 감성을 완성했다. 해가 길어지는 늦은 오후, 한강변에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듣는다면 올봄은 한층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 가속되는 일상 속, 감속해야 할 노화

정신없는 일상을 살다 문득 거울을 보거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 들면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실감하곤 한다.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도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운동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노화의 이치가 야속하다.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내 신체의 노화 속도는 조금이나마 붙들 수 있다. 노년내과 의사인 정희원 교수의 저속노화 팁으로 실천해 보자.

## 저속노화 식단이 뜨다

일 년 전인 2023년 1월 1일, 한 의사의 트윗이 1.4만의 공감을 받고 1.2만 번 리트윗되며 화제를 낳았다. 이 의사의 이름은 정희원. 그는 "새해에는 남들보다 뇌 늙는 속도를 1/4로 만드는 식사를 해 보자."며 "이를 지키면 남들 10년 치 늙을 때 2.5년만 늙는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브레인 포그, 우울감, 집중력 저하, 건강증이 모두 개선되고

몸에 부기와 염증이 싹 내릴 것이다."라고 썼다. 약장사의 전형적 만병통치약 소개 같은 트윗으로 시작된 타래는 그 다음 글로 읽는 이를 안심케 하고 글쓴이에 대한 신뢰도를 급상승시켰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서민의 식사가 이미 이 식사법과 비슷하다는 것. 그는 흰쌀밥이나 면 대신 렌틸, 귀리, 현미, 백미를 혼합한 잡곡밥과



반찬으로는 나물이나 채소,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기를 권하며 낮은 당지수의 복합탄수화물 통곡물과 콩 등을 주요 열량과 단백질원으로 삼는 MIND 식사의 개념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렌틸, 귀리, 현미, 백미를 4/2/2/2로 혼합한 밥을 추천한 이 트윗 타래 이후 해당 식단은 저속노화 식단으로 바이럴되었으며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술 등의 음식 사진은 가속노화 식단으로 자조되는 등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지향하는 트렌드에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도왔다. 이 긍정적 영향을 끌어낸 의사 정희원 씨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로, 『지속가능한 나이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등의 저서로 노화를 늦추고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소개해 오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저서인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서는 저속 노화를 위한 개인의 구체적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있어 매뉴얼로 삼기 적합하다.

## 효율적으로 먹고, 계속 움직이고, 잘 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을까. 그는 조선일보의 전문가칼럼에서 "노화 시계의 템포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뀐다. 달력이 1년 치 지나갔을 때 노화 시계가 1년 흐르는 것은 정속노화다. 가속노화는 1배속보다 빠르게 노화 시계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노화에는 유전자 30, 생활 습관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건강하지 않은 가공식품, 단순 당, 정제곡물투성이 식사,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술 담배,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가속노화가 계속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 암, 치매를 더 일찍 만나서 아픈 장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설명한 대로 노화시계의 템포를 결정짓는 것은 '먹기, 움직이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식습관에서는 자신의 목표에 맞는 식단, 내 몸에 맞는 열량을 효율적으로, 양보다 질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위에서 말한 MIND 식단은 단연코 장수 식단이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는 '근육 테크'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일상에서 걸을 기회를 찾아 제대로 걷고, 앉은 자세부터 고쳐서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학습해 루틴화함으로써 유연한 몸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고 하루 15분씩이라도 꼭 근력운동을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코어와 둔근(엉덩이)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호흡법,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잠'을 모든 노력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저자는 영양제 관련 질문에서도 '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최고의 영양제는 잠"이라고 하며 "충분한 수면 없는 노화 예방은 불가능하다. 충분한 수면, 질 높은 수면은 인지기능, 신체 건강, 노화 속도, 기대 수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 가속사회 속 감속의 지혜

그러나 이러한 가속노화의 책임이 개인의 생활 습관에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희원 교수의 진단이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연간 노동시간이 OECD 주요국 중 네 번째로 긴 나라(평균 1,852시간인데 한국은 1,901시간, 2022년 기준)인 데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출퇴근 시간(OECD 국가 평균 28분, 한국은 58분, 2016년 기준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시간은 평균 83.2분, 2023년 기준)으로 가처분 시간을 빼앗긴다. 몸과 마음이 지치니 손쉽게 스트레스를 풀려하고 소셜미디어, 쇼트폼 비디오, 술 등 빠른 보상이 가능한 것과 시간과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속사회가 가속노화를 만들고 있다."라며 "성공을 위해 N잡을 뛰고 스트레스를 풀다며 마라탕, 탕후루를 찾는 것은 모두 건강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다. 채워넣기보다 덜어내고, 충분한 '가처분 시간'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자극을 찾기에 자꾸 자극적 음식과 SNS에 중독되는데 오히려 강한 도파민 자극을 받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 기능이 후퇴하고 결국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결국 인위적인 자극을 빼고 지속가능한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정 교수가 말하는 노화 방지의 핵심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우리 노년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도 직결된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갈 사회를 위해서도 보다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 일단 4/2/2/2 비율의 렌틸, 귀리, 현미, 백미밥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참, 꼭 렌틸일 필요는 없다. 검정콩, 대두, 녹두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국산콩도 무방하다.

# 살아보듯 여행하는 우리나라 로컬여행

본격적인 여행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산들바람이, 꽃이, 신록이 어서 밖으로 나오라고, 이 화사한 시절을 즐기라고 손짓하는 때다. 이럴 때 눈으로는 풍경을 보고 몸으로는 현지를 체험하는 로컬여행은 어떨까. 국내이더라도 현지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은 국경을 넘는 것만큼이나 이색적일 것이다.

## 로컬여행, 생활관광

로컬여행은 뭘까. 단체관광버스를 타고 지역 명소에 들렀다가 정해진 코스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특산품을 쟁여 오는 여행도 넓은 범위의 로컬 여행이겠지만, 요즘의 정의는 ‘속도’와 ‘깊이’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듯하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현지에서 그곳이 머물며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체험을 해 보는 것이 지금의 로컬여행일 것이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시기에 로컬여행이 더 부각되고 곳곳의 지자체가 관련 상품을 기획해 내놓으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생활관광 상품들도 있어서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기회도 늘었다. ‘생활관광’으로 검색하면 강진, 해남, 군산 등 관련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아직 진행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고 추억을 예약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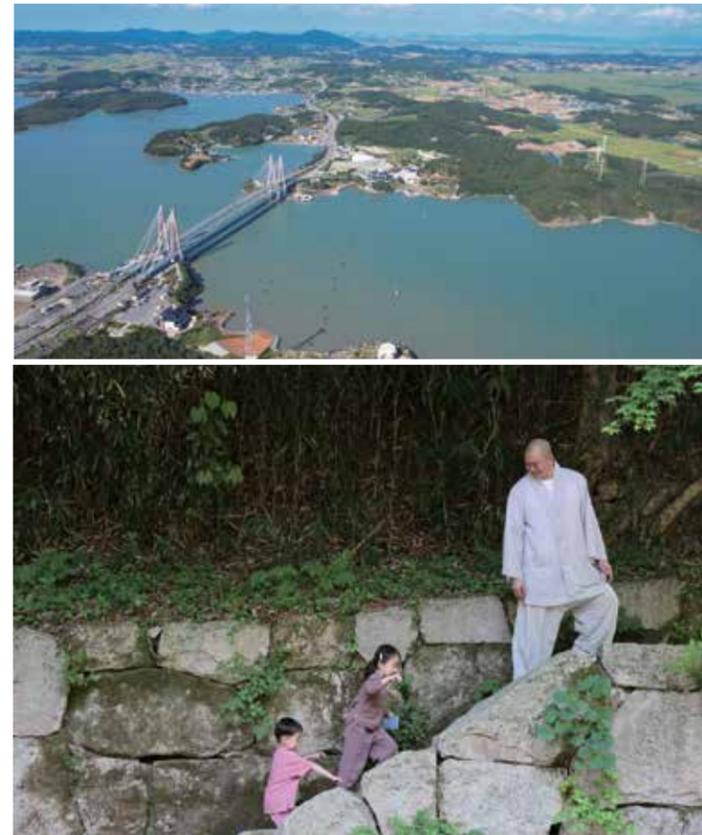


## 강진 푸소

지자체에서 마련한 대표적 체험형 로컬여행인 강진 푸소는 농촌 민박과 조식, 석식의 음식 체험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이다.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에서 착안하여 지어진 이름. 농촌집에서 숙식하며 따뜻한 감성과 지역민과의 소통,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훈훈한 농촌의 정서를 경험하는 감성 여행 프로그램이다.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차린 저녁 밥상을 받고, 주인공과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한다.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아침 식사 후 감자 캐기, 옥수수 수확, 염소젖 짜기 등 농가마다의 특징이 담긴 농촌 체험을 진행한다. 청자도요지와 고려청자박물관이 있는 강진이라 청자를 만들어 보는 유료 체험도 가능하다.

2015년 5월에 학생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던 강진푸소는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단계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도 개발, 확대하여 학생푸소,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강진푸소 시티투어, 공무원 청렴 푸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8년간 참여 인원은 무려 5만 3천여 명이며 강진과 인연을 맺은 체험객들이 또 방문하곤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연중 체험 가능하며 일반 푸소의 경우 1인 1박2일 기준 58,000원, 2박 3일 기준 116,000원이다. 푸소 홈페이지(www.fuso.or.kr)에서 원하는 농가 선택 후 일정을 고르면 된다.



## 해남 땅끝마실

해남 땅끝마실 역시 지역민처럼 살아보고 체험하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다. 해남군의 권역에 따라 두륜산 권역, 오시아노 권역, 땅끝달마산 권역으로 나뉘며 각 권역별 숙소를 예약하면 된다. 그중 두륜산 권역에는 무선동 한옥민박마을이 있어 한옥과 다도 체험이 가능하다. 1박 2일의 단기체류형부터 6박 7일 장기체류까지 구비되어 있으며 권역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즈넉한 시골 고향집 같은 숙박 경험은 여행을 따스한 추억으로 채워줄 것이다. 땅끝마실 이용객에게는 숙박 요금 40% 할인, 최대 2회의 조식 제공, 피크닉 세트 무료 대여(선착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해남 땅끝마을은 해맞이와 해넘이제의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볼거리 풍부한 공룡 박물관, 1300년 고찰 미황산의 옛 12개 암자를 잇는 순례 코스도 이 지역의 특색이다. 달마고도라 이름 지어진 이 순례 코스는 중국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의 법신이 상주한다는 믿음과 더불어 과거 선인들이 걸던 옛길을 복원한 것이다. 달마고도는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크와 계단 없이 흙과 돌로만 조성한 길인데 달마산과 해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특히 제1코스 출가 길은 소요 시간이 50분으로 짧으면서 달마산과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땅끝마을 홈페이지(www.haenam.go.kr/tour)를 통해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 청주 문의와유

대통령의 전용별장이었던 청남대와 시원한 대청호의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즐길 수 있는 청주시의 문의마을에도 생활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와 당신(you), 문의와 유(遊), 그리고 충청도 버전의 “문의 와유~”라는 언어유희로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청호 500리 길과 청남대 둘레길 6코스, 양성산 등산로의 걷기와 1일과 6일에 열리는 문의 오일장에서 활기,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 미술관에서 옛 생활과 작품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느껴보는 여행이 가능하다.

특히 청남대에서는 5월에 재즈토닉페스티벌도 열린다 관심이 있다면 시기를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 그 외에 문의와유에서는 수제청, 문의산 와인으로 만든 상그리아, 로컬 재료로 만든 쿠키, 다도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munuiwithyou.c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 NOROO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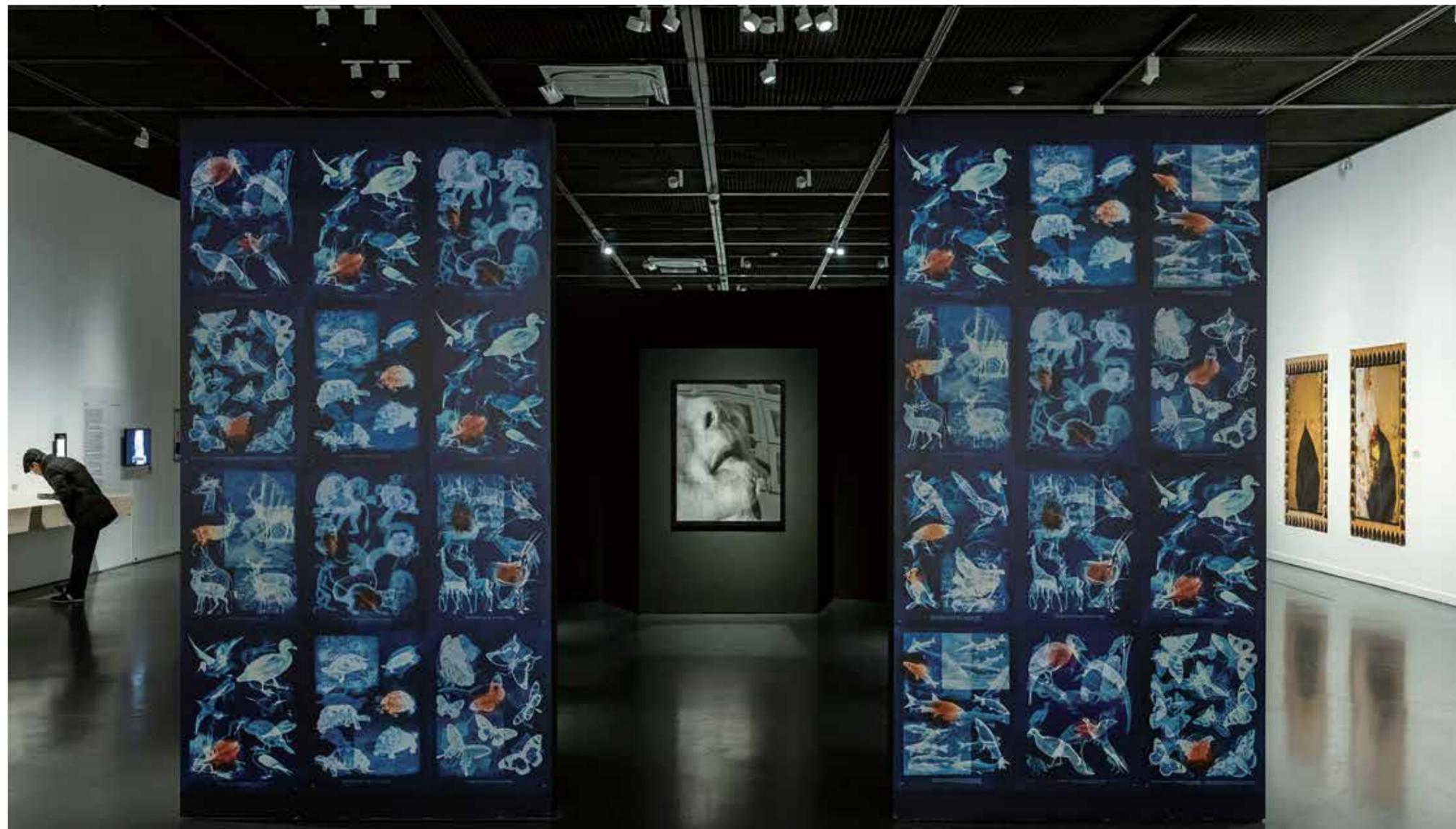
긴 역사 속에서 쌓아온 NOROO의 기술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더 청정한 에너지, 더 강한 국가, 더 풍요로운 문화를 위해  
NOROO의 매일은 계속 내일을 향해 갑니다.



# 구본창의 향해, 컬러 속에 닳을 내리다

## 구본창의 향해 with NOROO PAINT

서울시립미술관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사진작가 구본창의 회고전을 개최했다. 한국 현대사진뿐만 아니라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구본창 작가의 여정을 펼친 이번 전시에서 노루페인트는 깊이 있는 컬러로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작가의 긴 향해 중에 관람객이 곳곳에 닳을 내리고 더욱 오랜 여운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도왔다.



## 모험을 일으킨 호기심

구본창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 사진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사진작가이다. 독일 유학 후 서울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펼친 그는 '연출 사진'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한국 사진계와 미술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작품은 사진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객관적 기록을 뛰어넘어 사진 역시 주관적 표현이 가능한 예술 세계라는 인식을 넓히고 한국 사진계에 현대사진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24년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구본창 작가의 회고전을 개최하여, 그가 현대미술의 장르로 확장한 실험적 사진 작품들과 그의 시선으로 포착한 아름다운 정물, 인간, 순간의 사진 작품들을 마치 너른 바다를 향해하듯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노루페인트는 순&수 울커버 무광 페인트로 그 향해에 물길을 내고 공간에 따라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컬러로 감상의 깊이를 더했다. 이 컬러들은 작품의 고유한 분위기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작가가 직접 노루페인트의 컬러 차트에서 선정했다. 전시는 '호기심의 방'으로 시작된다. 유년 시절부터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던 구본창 작가가 수집한 손때묻은 사물들과 청소년기 습작 등을 모은 이 공간은 NOROO NU 4056 Chocolate Chunk 컬러가 어딘가 낯고 녹슨 듯하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한 무드로 그가 소중한 여건 것들을 감싸 전달한다. 이어서 펼쳐지는 '모험의 여정'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난 독일 유학과 귀국 후 제작한 실험적인 사진 작품, 전시 개최의 여정을 소개한다.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한 '모험의 여정'은 흑백, 컬러, 콜라주, 슬라이드 필름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만큼 화이트로 깔끔한 배경을 구성해 주었으며 각 공간을 잇는 복도에는 구본창 작가의 사진으로 제작된 영화, 무용 포스터, 잡지 등과 함께 곳곳에 자세한 연보를 배치해 전시의 이해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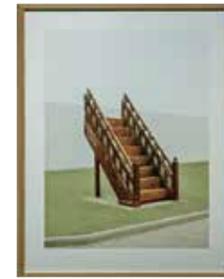




인간, 자연, 영혼  
그리고 익명자



짧은 복도의 끝에서 만나는 세 번째 전시 섹션인 '하나의 세계'에 들어서면 작품의 변화를 일순 느끼게 된다. 1992년, 나비학자 석주명의 기사를 접한 이후 그는 작업의 대상을 인간에서 곤충, 동물 등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로 확장했으며 1996년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매체적 실험에 집중했던 작품에서 자연과 삶의 순환에 집중한 정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으로 나아가게 된다.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가 가까스로 내쉬는 숨을 직접적으로 기록해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었던 <숨> 시리즈 이후 <시간의 그림>, <스노우> <오션> 등의 작품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생주이멸(生住異滅)에 대한 그의 성찰을 전한다. 그 전환점이 된 <숨>을 품은 전시 공간은 NOROO MC 2042 Midnight으로 무게감을 더했다.



1998년 '탈'을 촬영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그는 지화, 백자, 청화, 곱돌 공예품, 광화문 부재, 황금 유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촬영을 이어갔다. 네 번째 섹션인 '영혼의 사원'은 그 여정을 담았다. 그중 특히 <문라이징 III>은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소장된 달항아리 12개를 촬영해 각기 다른 흑백조로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달이 뜨고 지는 듯한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공간에 쓰인 NOROO MC 2042 Midnight는 밤하늘의 깊은 어둠으로 달항아리의 은은한 빛을 강조해 주었다. 마지막 섹션인 '열린 방'에서는 독일 유학을 시작하며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자신을 투영했던 <초기 유럽> 시리즈와 1980년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을 생경하게 바라본 <긴 오후의 미행>, 그 연장선에서 1996년부터 작업한 <익명자(incognito)> 시리즈를 볼 수 있다. '익명의, 미지의, 미행의'라는 'incognito'의 뜻이 PANTONE 18-4105 Moon Mist의 회색으로도 넘치지 않게 이 방은 '열린 방'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향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대상을 발견하고 풍경을 포착할 것이며 그 향해는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에 계속해서 큰 물결을 만들 것이다.



# 붓과 묵이 창조하는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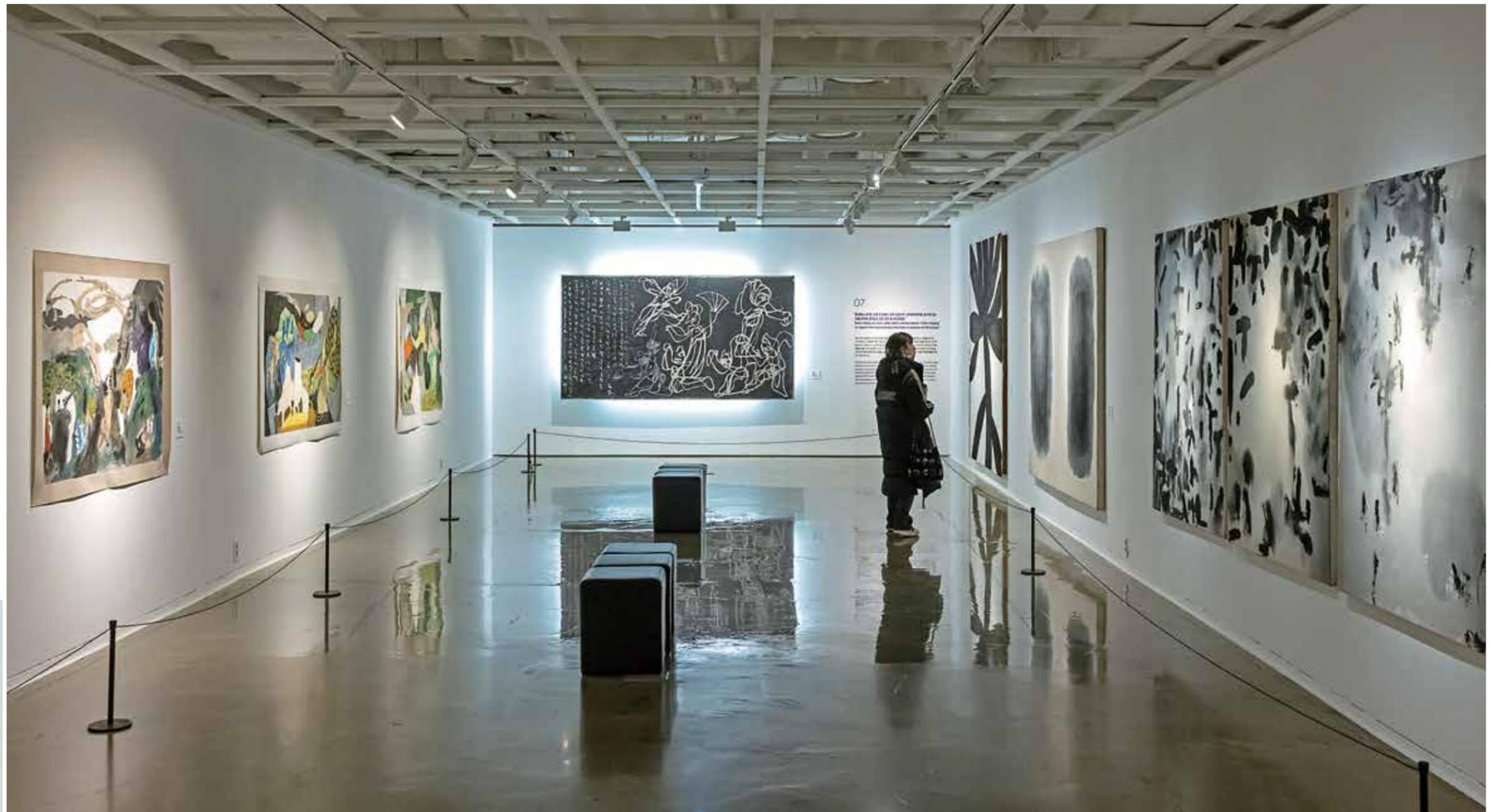
## 필묵변혁 with NOROO PAINT

지난겨울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귀한 전시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 수묵화 운동을 이끈 주역’ 남천 송수남과 ‘한국 화단의 테러리스트’ 소정 황창배, 두 사람의 작품을 모아 붓과 먹이 창조하는 두 세계를 한 번에 경험케 한 것. 각자의 시선으로 한국적 아름다움과 이미지의 본질을 탐구한 두 작가의 작품들은 노루페인트의 컬러들 속에서 서로 다른 빛을 더욱 선명히 발휘했다.

### 쏟아내고 빚어내다

수묵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옛 그림을 떠올릴 것이다. 옛 연하장에 자주 그려져 있던 소나무와 정자, 시구를 곁들인 매란국죽의 그림 등 주로 고요하고 정적인 그림들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에게 필묵변혁은 전시를 알리는 이미지에서부터 그 선입견에 균열을 낸다. 검은 동그라미 앞에 있는 사이버틱한 색상의 구형은 동세를 가지고 어디론가 구르거나 될 것 같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동그라미가 옮겨가 단단히 박힌 필묵변혁(筆墨變革) 글자는 붓(筆)과 묵(墨)의 변혁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케 한다.

기대감을 안고 들어간 첫 번째 공간, 섹션 1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파격적인 그림이 눈앞에 와락 달려든다. 해를 베어먹고 토해내는 듯한 짐승의 몸 안팎을 채운 붓질은 격렬한 몸부림을 전달한다. “이런 그림도 수묵화구나!”라는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 작품의 작가는 소정 황창배다. 황창배는 동양화 고유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형식은 유지하되 수묵 기조와 모필 사용을 다르게 전개하는 등 기존의 시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혁을 일으킨 화가이다. 그는 “그림은 머리와 손으로 그리지 않고 가슴으로 쏟아내는 것”이라며 대담한 형식과 지필묵 외의 재료들로 한국화의 경계를 확장했다.



그에 비해 송수남의 작품, <붓의 놀림> 연작은 붓과 먹, 닥과 한지 등 재료가 가진 본성으로 깊숙이 들어가 정수를 캐내고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종이 위에 떠올려낸 듯하다. 간결하고도 강렬한 형태, 단순한 구성, 면을 사용한 수평 구도, 먹 빛의 대비와 농담의 변화를 통한 원근감은 관념적 산수나 실경을 넘어, 아름답게 균형 잡힌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낸다. “한 획 한 획 그어가면 나도 모르게 잡된 생각이 사라진다. 붓질은 영혼의 빗질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 그의 작품은 특정한 대상의 묘사라기보다는 수묵운필 행위로 인한 추상으로, 문인화의 현대화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한국화’를 정립했다고 일컬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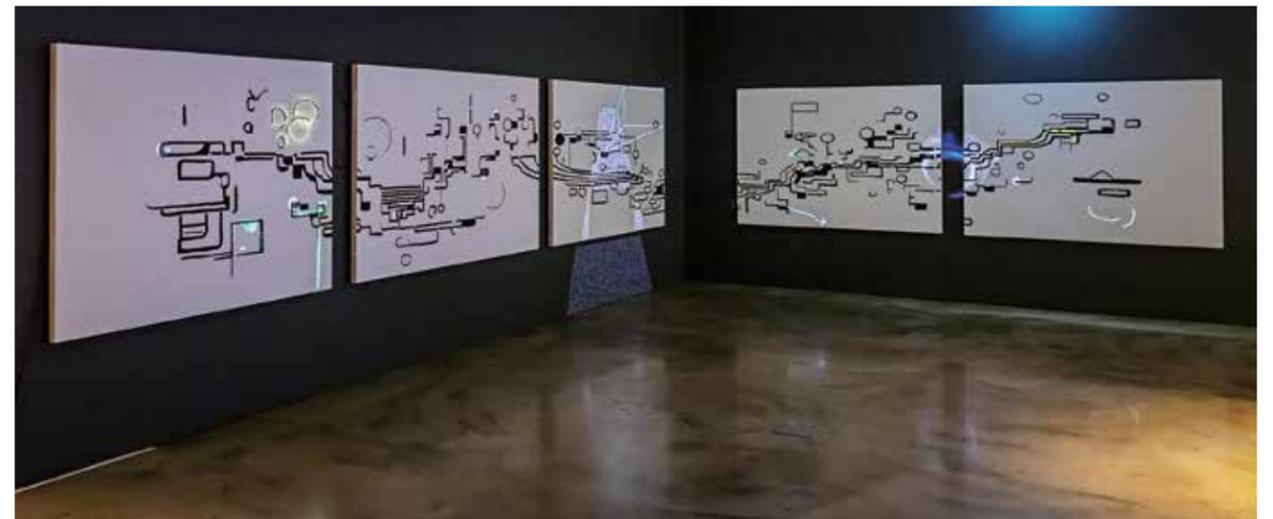


## 필히 변혁하다

이렇듯 다른 두 작가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 공간에 선택된 페인트는 따스한 색감의 순&수 울커버 페인트. 순&수의 울커버 White와 NOROO MD 6199 Soda Purple은 작품을 공간에 안착시키고 구간에 따라 동선을 안내하는가 하면 시시때때로 두 작품이 분리되어 감상되도록 돕는 등 제 역할을 해냈다. 그 안내를 따라 황창배의 작품이 걸린 섹션 2와 3, 송수남 작가의 섹션 4를 지나 섹션 5에 도착하면 관람객은 모두 잠시 쉬어가게 된다. 이 층고 높은 공간에서는 두 작가의 예술적 완성 시기인 1990년대 작품을 소개하였는데, 작업실에 놓인 것처럼 바닥에 내려져 있어서 막 붓질을 마친 작가가 된 것처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한 층 내려가면 진한 먹빛 NOROO MC 2013 November Storm 위로 두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다시 반긴다. 수묵화의 현대성과 전통성의 재발견을 위한 여정 속에서 그려진 송수남 작가의 <붓의 놀림> 시리즈가 섹션 6에서 이어지고 맞은편 섹션 7에서는 황창배 작가의 대범한 작품들이 걸리면서 서로 마주한 그림들을 통해 대비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섹션 8에는 송수남만의 독창적인 수묵산수를 위해 순&수 울커버 NOROO MC 2005 Smoky Moon이 달빛이 서린 밤공기를 채워 넣었으며 황창배 작가가 자유분방한 형태와 컬러를 분출해 낸 섹션 9는 NOROO MD 5044 Shellfish가 그 자유로움을 온화하게 품어준다. 관람평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섹션 10에 연결되는 MEDIA ZONE은 송수남, 황창배의 메시지와 작품을 테마로 인터랙티브 페인팅을 구현한 미디어 아트를 배치했는데 조명의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순&수 울커버 MC 2013 November Storm의 블랙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감상을 마치고 다시 필묵변혁이라는 글자를 보면, 첫 글자가 '必'로 여겨지기도 한다. 두 작가가 한국화의 지형을 창조한 고군분투의 여정에서 '반드시', '가필코'의 결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묵변혁》은 필히 변혁해야만 했던, 끝내 변혁해 낸 붓과 먹의 세계를 볼 수 있던 전시였다.



# 그림을 깨우다 생각이 춤춘다

그림 깨우기 :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전 with NOROO PAINT

우리는 왜 그림을 보러 갈까.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의 독창적인 전시를 보며 질문이 튀어나온 것은 그의 그림이 바로 답 자체였기 때문이다. 공간을 채운 생생한 색깔, 패턴, 움직임은 평면의 그림을 흔들고, 눈을 통해 머리로 전해져 생각까지 깨워냈다. 이 '깨어남'을 위해 우린 그림을 보러 가기도 하는 것이다. 음악 없이도 마음을 춤추게 했던 전시, 《그림 깨우기》를 돌아본다.



## 전통 속 라이징 스타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라니, 발음하기 쉽지 않은 라스트 네임에서부터 낯설이 다가온다.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가들로 이루어진 신(新) 라이프치히 화파의 일원”이라는 전시 소개 문구를 단서 삼아 이 작가가 속한 화파를 이해해 보자. 먼저 라이프치히 화파는 1960~80년대 구동독 남동부 라이프치히 조형예술 대학 출신의 작가들이 이룬 화파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배경으로 개인의 분노와 우울, 욕망을 표현했으며 1989년 통일 이후에는 ‘신 라이프치히 화파’로 이어져 회화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의 이미지를 결합하는 독특한 스타일로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주목받았다. 네오 라우흐,

팀 아이텔, 그리고 이번 전시의 작가인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등으로 이루어진 이들 화파에 대해 뉴욕대 순수예술학과의 로버트 스토크 교수는 “이들은 문학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으로 돌아가 무질서한 개념을 풍기는 아티스트들이다. 회화에서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니 흥미롭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중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는 재치 있고 대담한 표현, 광범위하고 과감한 재료의 사용, 디자인적 색채감, 작가의 예술적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회화적 정통성에 대한 신선한 접근 방법으로 ‘라이징 스타’로 불린다. 그럼, 이제 이 스타의 그림을 보자.



## 깨어나 노래하는 그림

“그림을 보자.”라고 했지만, 전시장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들어가는 느낌, 마치 그림이 나를 둘러싸고 빙글빙글 춤을 추는 것 같다. 캔버스에 에나멜로, 페이퍼에 과슈로 그린 움직임은 프레임 밖으로 뛰어나가 벽 전면을 점령하고 결코 멈추지 않을 군무를 춘다. 그림 안에 그림으로 구성된 이 생동감 넘치는 시각적 판타지는 첫 번째 섹션인 ‘그들은 춤추지 않는다, 발끝으로 노래한다.’이다. 이런, 이들이 춤추지 않는다면 춤추는 건 내 마음일 것이다.

발끝의 노래를 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섹션 2를 향하면 다채로운 색의 패턴들이 꿈틀거리며 형체를 갖추어 선 것 같은 거대한 조각을 만나게 된다. 매체와 스타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병치와 반복’의 파편과 패턴이 경계를 넘어 조각이 되면서 전시장의 설명처럼 이곳에서 마침내 우리도 ‘깨어나 움직이는 그림들의 한 부분이 되고’ 만다. 이 섹션에 적용된 순&수 올커버 MD 6092 Dusky Mint는 그림과 조각, 관람객을 한꺼번에 감싸며 하나로 융합시킨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단순하게 그러나 다양하게 표현된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저마다 달라 모순이 생길수록 더 좋다.”라는 작가의 글귀는 상상의 자유를 기꺼워해 주는 듯하다. 이곳의 순&수 올커버 NU 4185 Lavender Gray는 언뜻 건조해 보이는 그림 속 표정에 어울리는 도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이어진 섹션 4 ‘사건의 재구성 -마법과도 같은’에서는 추상적 회화와 가구 같은 조형물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퍼즐처럼 맞춰보는 재미가 있다. 이 재미는 다음 섹션인 ‘공상의 부스러기들’에서도 계속되는데 흑백의 그림을 자르고 붙인 것처럼 조합되어 있어 계속 들여다보게 한다.

마지막 섹션인 ‘메이크 업: 달라짐의 미학’은 무대 위의 사회자처럼 관람객을 맞이하는 <Young Man in Penguin Suit>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며 대미를 마련한다. 공중에 떠 있는 다양한 표정의 마스크 시리즈는 가면 무도회처럼 화려하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 전시장을 떠나는 발걸음 끝까지 진득한 여운으로 따라붙는다. 이 섹션에 쓰인 순&수 올커버 W 8112 Cerulean은 묵직한 푸르름으로 막을 내리는 역할을 해 준다.

전시의 막은 내려져도, 관람객의 머릿속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깨어나라 그림이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이여,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모양이여, 모두 깨어나 함께 춤추자!”라는 전시장 입구의 부제는 그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과 함께 관람객의 생각도, 상상도, 시각도 깨어나는 그림의 경험이 바로 <그림 깨우기> 전이었다.



# 당신의 사랑은 무슨 색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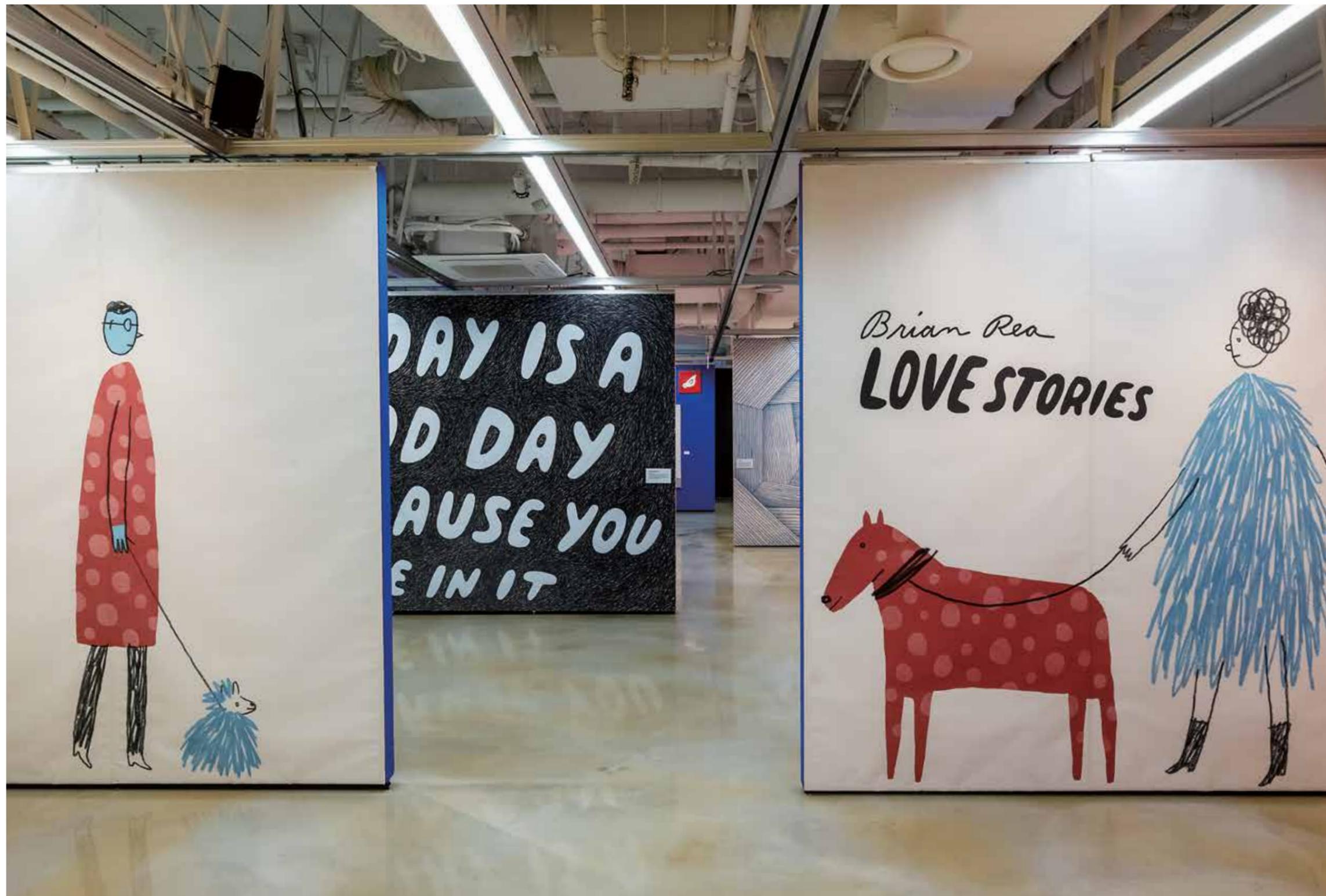
브라이언 레 《LOVE STORIES》 with NOROO PAINT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다. 지구의 인구가 81억 명인 지금, 적어도 81억 개의 사랑 이야기가 있을 테고 여기에 전설과 예술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까지 더해진다 면 그 수는 셀 수 없을 것이다. 그 무한의 사랑 중 올봄엔 브라이언 레가 전하는 러브 스토리들을 만나 보자.

## 색색 가지의 사랑

간결하고도 자유로운 선으로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담백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브라이언 레는 십수 년간 뉴욕타임스의 주간 칼럼인 「모던 러브(Modern Love)」의 고정 아티스트로 활동해 왔다. 「모던 러브」는 2004년, 독자들의 사랑 사연을 받아 쓰는 코너로 시작해 현재까지 연재 중인 칼럼으로, 책과 TV 시리즈, 팟캐스트로도 제작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십 대의 사랑, 장거리 연애, 부부의 고민,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자기연민 등 개별적이고 특수한 이야기들 속에서 사랑이 지닌 보편성은 독자를 울고, 웃고, 생각하게 만든다. 브라이언 레는 이러한 이야기에 이미지를 덧대어 생각이 더 넓은 곳으로 번져가도록, 감정은 더 가득 차오르도록 돕는다.

이번 전시에는 「모던 러브」 칼럼을 위해 제작한 650여 점 중 엄선한 100여 점의 작품을 포함해 특별히 제작한 드로잉, 글, 회화, 애니메이션, 조각, 벽화, 스케치 등 수백 점의 작품들이 걸렸다. “저는 에세이가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재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저자의 경험과 감정의 톤이 매치되는 평행한 시각적 이야기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죠.”라고 하며 자신의 「모던 러브」 일러스트들을 일종의 ‘시각적 사랑 기록’으로 간주했던 브라이언 레의 작품에는 종종 그의 친구와 이웃, 가족이 등장하곤 한다. 개별의 사랑 이야기에 반영된 그의 경험들은 작품에 대한 공명과 친근감을 높여 따스함을 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 보도록 만든다. 그렇게 바라본 사랑들은 전시장을 다채롭게 채운 팬톤페인트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들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될 것이다.





노랑, 분홍, 파랑의 이야기

황금빛을 품은 산뜻한 노랑, PANTONE 15-0955 Old Gold로 시작되는 전시장 한 칸은 그의 드로잉으로 가득 차 있다. 항상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관찰한 순간을 그리고 써서 수집한다는 그의 종이와 몽당연필들은 마치 별뿔처럼 따스한 햇살의 조각으로 시선을 붙든다. 이 겹겹의 스케치로부터 다음 공간에서 만나는 액자 속 작품들이 탄생된 것을 생각하면 마치 씨앗 저장고처럼 느껴진다.

운명 같은 만남 1초 전인 개 산책자들의 시선 사이를 지나면 'TODAY IS A GOOD DAY. BECAUSE YOU ARE IN IT'이라는 커다란 흑백의 그래피티와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검은색 오일 스틱으로 쓱쓱 그어 완성한 심플한 그림들은 PANTONE 19-4151 Skydiver의 너그러운 파랑과 PANTONE 13-5911 Bird's Egg Green의 부드러운 결 속에서 산뜻함이 더 살아나고, 이어진 공간의 PANTONE 15-1712 Murex Shell은 손과 손이 맞닿아 한층 올라가는 체온 같은 온기로 브라이언 레의 '러브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준다.



이 컬러 속에 자리한 커다란 조형물은 벽 너머의 연인과 길고 긴 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과 스웨덴에 걸쳐진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해야 했던 작가의 경험을 녹여 낸 작품으로, 그림으로도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그래피티 문구 또한 작가가 자녀에게 자주 해주던 말이라는 걸 함께 떠올리면 이 전시의 다정함이 더 진해질 것이다.

작가의 작업 과정과 철학을 전하는 영상과, 관찰자의 시점과 피 관찰자의 시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기묘한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실에서 내다본 풍경>에 이어 빠르게 벽을 채운 '데일리 드로잉'과 캔버스에 아크릴 컬러로, 종이에 연필로 그린 크고 작은 그림은 PANTONE 19-1101 After Dark, 14-1911 Candy Pink, 13-4305 Foggy Dew 등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변주 속에서 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전시의 마지막까지 팬톤페인트의 컬러들은 작품을 충실히 에스코트하며 러브 스토리의 엔딩을 장식한다. 수많은 사랑의 에피소드, 브라이언 레의 애정, 그리고 관람객의 마음까지 연결되는 이 엔딩은 아마도 총천연색 해피엔딩이 아닐까.



# 첨단도료와 스텔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

##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with NOROO PAINT

노루페인트의 첨단도료 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첨단화학과학 스텔스 도료’ 전시 공간이 지난 1월 16일, 국립중앙과학관에 문을 열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미래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마련한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전시에 노루페인트가 함께한 것. 이 전시 공간에서는 노루페인트의 첨단도료 기능을 실감 나는 미디어로 만날 수 있다.

### 스텔스 도료, 전투기를 보호하다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관, 미래기술관, 인류관, 자연사관, 천체관, 어린이과학관, 창의나라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관이다. 연간 150여만 명의 관람객이 풍부한 콘텐츠를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꿈을 키우는 이곳에 노루페인트가 첨단도료의 기술을 소개하는 ‘첨단화학과학 스텔스 도료’ 전시 공간을 꾸렸다.

‘첨단화학과학 스텔스 도료’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여러 전시관 중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미래기술관’에 조성되었다. 이곳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 산업, 사회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지금의 기술에서 발전해 나갈 미래 생활까지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가장 최신의 과학 기술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과학 기술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난 1월 16일, 전시관 2층에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전시를 개막했다. ‘일상으로 다가오는 미래기술 체험’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첨단 ICT 및 첨단 화학, 첨단 안전기술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노루페인트 외 4개 기업이 참여하여 일상을 바꾼 첨단 기술과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노루페인트의 ‘첨단화학과학 스텔스 도료’ 전시는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돕는 스텔스 도료의 원리에 가상의 스토리를 추가해 생생히 실감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전한다. 세로 3미터, 가로 16미터에 달하는 긴 스크린에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적군의 미사일이 빠르게 그 뒤를 따라가면서 긴장감은 고조된다. 안타깝게도 끝내 미사일에 격추된 전투기의 화염을 뒤로 하고 등장한 컬러몬은 전투 상황에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기술인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간다. 적군은 레이더, 적외선, 음향 신호를 보내 상대 전투기를 감지하는데 스텔스 기술은 이러한 적의 탐지로부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신호의 크기를 차단, 축소한다. 노루페인트의 스텔스 도료인 전파 흡수

도료의 경우, 적군이 보내는 전파를 흡수하여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전파 흡수 도료를 우리의 전투기에 바르면 우리 전투기에 보낸 적군의 전파가 되돌아가는 순간, 도료 속에 있던 물질이 전파를 흡수하는 것이다. 적군이 내보낸 전파를 90% 이상 흡수하면 우리 전투기는 새나 나비처럼 작은 물체로 인식되어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게 된다. 노루페인트의 전파 흡수 도료로 안전하게 보호된 전투기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난다. 약 5분 남짓한 영상은 긴 스크린에 어울리는 광활한 창공의 전투기 추격 장면과 이해하기 쉬운 전파 흡수 도료 설명으로 몰입감을 높이고 페인트의 기술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한층 넓혔다.





### 첨단 기술 소개로 우리의 자부심을 높이다

노루페인트를 포함해 뉴튼(Newtune)의 ‘인공지능과 음악 작곡’, 지크립토(ZKRYPTO)의 ‘블록체인과 투표’ 등 5개 기업의 콘텐츠로 이루어진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전시 개막식에서 국립중앙과학관 이성래 관장은 감사의 말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더욱 흥미롭게 과학을 학습하고 체험하기 위해 국립중앙과학관 최초로 민간 기업과 협

력하여 기획한 이번 전시를 통해 기업의 첨단 기술이 널리 알려지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며 우리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시의 의미와 목표를 밝힌 개회사 이후 각 기업을 대표해 모인 참석자들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노루페인트를 대표해 개막식에 참가한 연구소장 이성근 상무는 노루페인트의 첨단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전시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으며 그 후 진행된 전시 해설에서는 노루페인트 오픈이노베이션팀의 김문우 팀장이 스크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파 흡수 도료의 원리와 함께 전투기 외에 자율 주행 차량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개막식이 과학관 운영 시간 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도 계속 전시관을 오고 갔다. 나란히 줄을 지어 단체관람을 하는 키 작은 어린이들에서 돌셋씩 짝을 지어 다니는 청소년 관람객,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 노루페인트 ‘첨단화학과학 스텔스 도료’ 전시장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영상에 집중했다. 한 관람객은 “페인트가 이런 기능도 하는구나.”라고 동행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페인트의 놀라운 기술을 깨닫게 하고 노루페인트의 저력을 확인케 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미래사회와 첨단기업’ 전시는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 [특약점], 가치를 올리다

## 2024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

드디어, 마침내, 다시 만남의 장이 열렸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만 개최되었던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가 지난 2월 제주에서 '특약점, 가치를 올리다'라는 주제 아래 환대의 자리를 준비해 전국의 VIP 특약점주들을 초청, 신제품을 소개하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 페인트와 색채로 세상을 바꾸는 특약점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가 열렸던 2월 22일, 어두운 먹구름과 비바람이 거세던 제주시를 벗어나 행사장이 있는 서귀포시에 들어서자, 하늘이 개면서 바다가 푸르게 드러났다. 구름을 뚫고 새어 나오는 햇빛의 밝은 기운은 롯데호텔 제주 세미나장에서도 느껴졌다.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만난 노루페인트 특약점주들은 따뜻한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햇살처럼 반가운 미소를 얼굴 가득 띄웠고 세미나장 입구에 노루페인트가 마련한 [ ], 가치를 올리다' 포토존에는 그 미소를 사진에 담아두기 위한 긴 줄이 생겼다. 로비에 설치된 신제품 홍보 부스들에서는 제품을 소개하는 임직원의 열띤 목소리와 특약점주들의 열중하는 눈빛이 만나 장내에 활기를 채웠다.



이어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랜드볼룸 내부의 대형 스크린에 노루페인트의 주요 활동이 흐르고 가슴을 두드리는 북소리와 무용단의 힘찬 안무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 고취했다. 이윽고 아나운서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김용기 부회장은 “코로나, 그리고 전쟁과 지진, 고금리와 고물가,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사장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 난관을 돌파하는 열정 덕분에 노루페인트가 특약점과 함께 성장하고, 선두에서 시장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페

인트와 색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장님들의 가치를 올려드리게 것이 노루페인트와 NOROO 그룹의 소명이라는 다짐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2024년에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품, 서비스, 인프라 등 세밀한 부분까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 또한 강한 목소리에 담아 전달했다. 이후 김용기 부회장의 소개에 따라 단상에 오른 임원진들은 깊게 허리 숙인 인사로 특약점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 특약점의 가치를 높일 신제품

드디어 세미나의 꽃이자 하이라이트인 신제품 발표 순서. 노루페인트 연구소장 이성곤 상무가 단상에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한 신제품을 소개하려니 설립니다.”라며 벽한 표정으로 운을 뚫은 이성곤 상무는 건축용 9개와 자동차 보수용 2개의 혁신적 신제품, 코로나 시기에 출시되어 오프라인으로 다시 소개하는 7개의 주력 제품 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소개된 제품은 광열폭을 방지하며 KS 규격을 만족하는 수성 내부용 극무광 페인트, 순&수 뷰티텍스로 실내공기질 인증까지 획득해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시장에 소구하는 제품이다. 다양한 인테리어 부자재와 결합해 소재의 질감을 더욱 확실하게 살려주는 바닥재인 ‘에그리나 멀티 바인더’도 특약점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용 스프레이 장비 없이 붓과 롤러 등 수작업으로 도장이 가능한 고경도 바닥 마감재인 폴리아스틱 바닥재는 적용 범위가 실외와 실내로 넓어 다양한 곳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초속경 MMA 투명 타입으로 간편하게 원데이 시공이 가능한 데다가 항곰팡이 기능까지 있는 다용도 시스템 바닥 마감재 노루웨이 클리어 시스템, 마찰력이 높아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난 노루웨이 스포츠코트, 건조가 더딘 환경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는 초속경 물탈, KS 규격을 만족하는 바닥 및 방수 겸용의 에코 탄성탄 하이브리드까지, 이해를 돕는 영상을 곁들인 차분한 소개는 높은 집중도를 이끌어냈다. 청중은 자리마다 비치된 가이드북에 메모를 하며 노루페인트가 진일보시킨 신제품들에 귀를 기울였다.



자동차 보수용 신제품으로는 빠른 건조성과 퍼짐 및 연마성을 강화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킨 프리미엄 1K 프라서페,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주제 타입으로 혼합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HS 크리어 등이 노루페인트의 기술력을 전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개발, 출시되어 주력제품으로 자리 잡은 순&수 울커버 등 7개 중을 마지막으로 신제품 소개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 신제품 소개 중에는 상품이 걸린 퀴즈를 마련해 관심과 재미까지 한껏 고조시켰으며 이어진 초청 강연에는 가페라 가수 이한이 몽글한 가족사와 격조 높은 노래로 세미나 1부의 마무리를 도왔다. 또한 ‘노루 파워-업’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해 로비에 준비한 경품 룰렛은 행사의 흥을 돋우고 당첨자들에게 함박웃음을 선사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1박 2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노루페인트와 특약점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치열히 준비해 온 신제품과 정성껏 마련한 행사로 풍성한 환대가 되었던 이번 세미나는 더 큰 성장의 해가 될 2024년을 기대하게 했다.



NEWS BRIEFING



친환경 수용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워터칼라 플러스' 출시



'철강 리사이클 방청도료' 국제 인증기관에서 재활용 소재 인증 획득



캐릭터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 강화



아파트 재도장 3D 시뮬레이션 서비스 출시

(주)노루페인트

친환경 수용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워터칼라 플러스' 출시

노루페인트는 지난 3월, 친환경 수용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워터칼라 플러스(Water Color Plus)'를 출시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페인트로, 지난 2021년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VOCs 함유 기준이 200g/L 이하로 엄격해졌다.

신제품 '워터칼라 플러스'는 이러한 VOCs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수용성 제품으로, 휘발성 용제를 물로 대체하여 냄새가 거의 없으며 유성페인트에 비해 도장의 경도가 단단해 견고함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고휘도 색상 구현력과 원색 시스템으로 조색이 수월하며, 약 35,000가지 색상의 배합이 가능해 국내외 전 차종의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제품에는 총 92종의 고흡도 타입 조색제와 수용성 바인더를 혼합하여 최종 도장 전 스프레이 점도에 맞게 희석 후 사용하는 수지 분리형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도장 작업자 간 색상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수성 시스템과 대비했을 때 건조시간이 빨라 전체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루페인트는 이 신제품에 대한 실습 교육을 노루기술교육원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마련된 노루기술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도장 실습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보수 도장 조

색 시스템은 수성 및 수용성 타입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2가지 타입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 노루페인트가 유일하다."라고 하며 "앞으로 시장과 소비자 니즈에 맞춰 컬러 배합을 늘리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철강 리사이클 방청도료' 국제 인증기관에서 재활용 소재 인증 획득

노루페인트는 지난 2월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시험·검사·인증기관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철강 리사이클 방청도료' 재활용 소재 인증(Recycled Content Verification)을 획득했다. 인터텍은 기업이 선언한 재활용 소재에 대해 ISO 14021 지침에 따른 엄격한 테스트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고객이 소재 관련 환경인증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을 제공한다. 이번에 노루페인트가 인증을 획득한 철강 리사이클 방청도료는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슬래그)을 도료 원료로 재활용한 제품이다. 부착성과 도막 강도가 우수하고, 방청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철구물의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노루페인트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표면 개질 기술을 응용해 분산성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상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안료·도료 기술을 확립했다. 또 그동안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여 사용하던 체질 안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철강 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철강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재활용 제품 라인업 확장을 위해 철강 부산물 리사이클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캐릭터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 강화

노루페인트의 캐릭터 마케팅이 『머니투데이』 2월 21일 자 기사에 실리며 관심을 모았다. 노루페인트는 그간 고객 소통 유튜브 채널 <페인트잇수다>를 운영하며 페인트 업계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소비자 스킨십을 강화해 왔다.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페인트잇수다>는 소비자가 셀프 인테리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페인트·인테리어·컬러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전달하며 구독자 3만여 명, 콘텐츠 누적 조회수 1,000만 회 등의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더하여 노루페인트는 친근하고 유쾌한 캐릭터 '컬러몬'을 새로이 등장시켜 볼거리를 늘렸다. 막 입사한 신입 사원 콘셉트의 컬러몬은 어렸을 때부터 컬러칩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한 번에 색상 번호를 맞추는 등 천재적인 컬러 능력을 보유한 캐릭터이다. 호기심이 많은 컬러몬은 노루페인트에서 출시한 제품과 마케팅 활동을 연구하고 페인트와 관련된 정보와 기업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유튜브와 SNS 채널에서 활약 중이다. 이렇듯 차별화된 고객 소통과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있는 노루페인트는 온라인 마케팅 외에도 전 사회와 같은 예술계를 비롯해 젊은 세대가 찾는 공간과의 콜라보를 통해 그 접점을 더 늘리고 있다. 『머니투데이』에는 이러한 활동이

소개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선한 마케팅으로 업계 선도하고자 하는 노루페인트의 각오도 함께 실렸다. 노루페인트는 확고한 취향에 가진 MZ세대에 맞춰 캐릭터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접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파트 재도장 3D 시뮬레이션 서비스 출시

노루페인트는 아파트 재도장 시즌을 맞아 '3D 시뮬레이션 서비스' 론칭을 통해 아파트 재도장 원스톱 컨설팅을 강화했다. 노루페인트 아파트 재도장 원스톱 컨설팅은 현장의 기초자료 검토와 고객 요구사항 체크, 컬러와 디자인 제안부터 도장 후 AS까지 아파트 재도장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것으로, 이 중 3D 시뮬레이션은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을 그래픽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3D 시뮬레이션은 노루페인트 제품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기존 2D그래픽의 플랫폼 이미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아파트의 전면부와 후면부 등을 가상공간에서 3D 동영상으로 확대·축소·회전을 통해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색채를 자유롭게 적용해 아파트 재도장이 완성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예상할 수 있다. 3D 시뮬레이션에는 실제 아파트 모델링으로 입체적인 형태와 디테일을 구현했다. 노루페인트는 홈페이지(www.norooopaint.com)의 고객지원 카테고리 중 '색채지원'의 '아파트 재도장'에서 의뢰 내용과 아파트 정보 등을 입력하면 전문가가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정무역으로 돕는 지구 위 균형

공정무역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무역 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요기구인 공정무역기구들은 커피, 초콜릿, 바나나, 목화 등에서 세계 시장을 독점한 대기업 중심 국제무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3세계 농부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이 가능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공정무역기구의 인증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지구를 돕는 일이 될 것이다.



### 공정무역 마크

그럼 어떻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것은 공정무역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와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민주적 조합 형성, 공정한 가격 지불, 여성 생산자 발언권의 보장, 친환경 생산의 원칙 및 유기농 경작의 지원, 금지된 농약 사용 금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등을 기준 삼아 각각 FLO 마크와 WFTO 마크를 부여한다. FLO 마크는 해당 제품이 공정무역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WFTO 마크는 해당 제품을 비롯해 그 제품을 만든 조직 전체가 공정무역 원칙을 준수했음을 알려준다.

### 커피, 초콜릿, 바나나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식음료, 목화, 의류, 공정무역 인증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와 귀금속 등 약 32,000여 개로 다양하다.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커피와 초콜릿, 바나나 등이다. 커피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등 체인점 외에 이제는 동네 카페에서도 흔히 공정무역 마크를 찾아볼 수 있다. 유기농 매장이나 대형 마트 유기농 코너에서 공정무역 초콜릿과 바나나, 아이스크림 등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 차차 친해져보는 게 어떨까.

### 의미 있는 소품

귀여운 소품과 장신구를 선물할 때 공정무역 제품으로 따뜻한 마음과 의미를 더하는 것도 좋겠다. 스모어웨이브(smorewave.com)는 핸드메이드 키링, 가방 등 네팔의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데 독특하고 소박한 맛이 있다. 페어트레이드 코리아(fairtradekorea.co.kr)는 환경과 공정무역, 로컬을 기반으로 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유통하는 소셜 기업으로 WFTO 멤버이며 옷과 화장품, 반려동물 용품까지 다양하게 취급한다. 공정무역가게(smartstore.naver.com/shopfair)는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인증한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문 쇼핑몰이다. 온라인 대형 쇼핑몰에서도 '공정무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생각보다 많은 제품이 나오니 마음껏 골라보자.



2024 봄호 사보를 꼼꼼히 읽어주신 독자들에  
퀴즈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퀴즈의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10분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TIP** 답은 늘 사보 안에 있습니다!



노루페인트는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하여 그동안 개발해 온 2차전지와 ○○ 에너지 관련 소재를 공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 에너지는 물을 분해해 사용하기에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근본적 그린 에너지입니다. 특히 노루페인트는 태양 에너지와 풍력의 전기를 사용하는 그린 ○○를 만드는 쪽에도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수박
- ② 수력
- ③ 수소

- \*4월 30일까지 chan@noroo.com으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 \*당첨 개별 연락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의 제목은 '2024 봄호 사보 퀴즈 정답'으로 보내주세요.
- \*선정되신 10분께는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 드립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70호(비매물)

중별: 정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안양 바00022 등록연월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일: 2024년 4월 10일 발행처: (주)노루홀딩스  
발행인: 강태준 편집인: 정석찬 기획 및 디자인: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저넷 사진: 마주스튜디오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발행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문의: 02-2191-7700